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0. 9. 1.

발 의 자 : 김태근 의원 외 22인

1. 주 문

-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식수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홍수예방 등을 목적으로 낙동강 물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대구시에서는 「경북·대구 맑은 물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대구 취수원을 우리시 도개면 일원으로 이전하려는 무모한 계획으로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 구미시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내륙최대의 첨단디지털 산업단지를 갖춘 인구 50만 시대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 이곳에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은 낙동강 하류지의 수량부족으로 새로운 환경오염이 발생되며, 또한, 구미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구미산업발전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너무 큰 손실이 예상되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사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 하면서 결의문을 채택코자 함.

2. 제 안 이 유

-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시 인근 강 지역 또는 기존 달성·강정보에서 자체 취수원 확보가 가능함에도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들여 구미지역에 새로운 환경오염 발생과 주민재산권 침해, 수돗물 가격상승 및 개별공장 유치 방해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발전에 크나 큰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을 계획하고 있음.
- 이는, 국책사업을 전적으로 불신하는 처사이며 장래 우리지역은 수원 부족현상으로 수돗물 요금 인상, 기업체 가동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우리지역주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40만 구미시민과 함께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함.

3. 참고사항

- 결의안

-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

결 의 안

- 대구시에서는 『경북·대구 맑은 물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구미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채 대구 취수원을 낙동강 상류인 우리시 도개면 일원으로 이전하려는 무모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대구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용역 한 결과 『타당성 없음』이라는 결과를 무시하고, 천문학적 사업비를 들여 낙동강 상류에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려는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수확보, 수질개선, 생태 복원, 홍수예방 등의 정부 시책 사업을 전면 부정 하면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하류지역의 수질 악화로 구미공단 기업체가동에도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구미발전과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 이에, 우리 구미시 의회는 40만 시민과 함께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구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 해양부와 대구시는 갈수기에 우리시의 수원 부족 사태와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반 환경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구시는 한국기술연구원의 용역결과 「타당성 없음」이라는 결과를 무시한 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다시 의뢰한 것은,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와 과정에 불과함으로 조사내용과 과정, 타당성의 근거를 만천하에 공개하라.

하나, 구미시민의 생존권 침해와 개별 공장입지 제한 등으로 기업 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구미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취수원 이전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대구시는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상이나, 수질 정화를 위한 자구노력 없이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대구권 취수원 구미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대구지역 내 자체적으로 해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국책사업에 정면 배치되고 지역간 갈등과 주민 재산권 침해 및 구미발전을 가로막는 대구 취수원 이전을 40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0년 9월 1일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